

보도시점 2025.10.20.(월) 15:30 배포 2025.10.20.(월) 14:30

구윤철 부총리, 경제성장전략 성과창출을 위한 경인사연 연구기관의 역할 당부

- KDI 등 주요 경제분야 경인사연 연구기관장(13개)과 워크숍 개최
- 기관장들, AI·초혁신경제, 산업안전 제고, 청년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제언
- 기재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정책제언 및 협업 요청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20일(월)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단지 대회의실에서 경인사연 연구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가 싱크탱크로서 경인사연 연구기관의 역할 및 과제”를 주제로 기관들의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전략 발표 및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 경제분야 경인사연 연구기관장 워크숍 개요 >

- ▶ **일시·장소:** '25.10.20.(월) 11:50~13:50, 세종 국책연구단지 A동 대회의실
- ▶ **참석자:** (기재부) 구윤철 부총리, 재정관리관, 공공정책국장, 공공혁신심의관 등 (경인사연) 경인사, 과학, 국토, 대외, 산업, 에너지, 정보, KDI, 교통, 노동, 보사, 조세, 환경 등 **기관장(13개)** * 직무대행 등 일부 기관 부기관장 대참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추격경제’에서 세계경제를 이끄는 ‘선도경제’로의 대혁신을 이뤄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국가 싱크탱크이자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동반자로서 경인사연 연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정부는 핵심 성장동력인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예산·세제·규제 완화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도 지난 7월 30일 발표한 「AI 활용 활성화방안」 등을 통해 AI 대전환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고, 오는 10월 28일 「공공기관 AI 대전환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민간, 학계가 함께 AI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공공분야 AI 확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관별 발표에서는 ▶ AI·초혁신경제 등 국가성장전략 지원을 위한 역할(한국개발연구원), ▶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제고 방안(한국노동연구원), ▶ 청년일자리 확대 및 복지·돌봄·고용 안전망 강화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3개 기관이 경제성장전략 성과창출을 위한 기관별 정책제언을 발표하였다.

< 경제성장전략 성과창출을 위한 기관별 전략 >

- ▶ (한국개발연구원) AI·초혁신경제 등 국가성장전략 지원을 위한 역할
 - AI를 활용한 경제성장전략 방안, 규제-성장 공동 KPI 제도화, 혁신금융 아이디어
- ▶ (한국노동연구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제고 방안
 - 산안공에 집적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정책 및 관리체계 수립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일자리 확대 및 복지·돌봄·고용 안전망 강화방안
 -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AI를 활용한 잡매칭 플랫폼 고도화, 지역특화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위기청년을 지원하고 구직·자립활동 집중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도 ‘AI활용·확산,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초광역화 촉진(산업연)’, ‘데이터 기반 지출검토 도입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강화 필요(조세연)’ 등 참석 기관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부총리는 이를 경청한 후 산업안전이나 일자리 매칭, 고용인력 수급 예측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획기적 모델이 다수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경인사연 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간 융합과제 수행 및 협업을 통해 우수사례가 많이 배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국책연구기관이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에 적극 힘써 달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오정윤 (044-215-5530)
		담당자	사무관	안기용 (giyongahn@korea.kr)
			사무관	송준식 (junsics@korea.kr)
			주무관	김보현 (gustave21@korea.kr)



1. 인사 말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동력: AI와 초혁신경제

- 지금 세계 정세는 정말 복잡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관세협상,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동시에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경제·산업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경제’에서 벗어나서
‘선도경제’로의 초혁신을 이뤄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산업현장은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숨쉬는 공기처럼 AI가 존재하고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 이같은 변화의 흐름은 다시 없을 기회的时间이기도 합니다.
민·관이 힘을 모아 제대로 준비한다면
우리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인식 하에 이재명정부는
경제 대혁신의 가시적 성과를 빠르게 만들고자 합니다.

- 「새정부 경제성장전략(8.22.)」에서 밝힌 바와 같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예산·세제·규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3. **국책연구기관, 새정부 성장전략의 동반자**

- 경인사연을 포함한 공공기관 또한 성과 창출의 동력으로서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 정부는 지난 7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방안」을 발표해 AI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AI 우수기관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 오는 10월 28일에는 「공공기관 AI 대전환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민간, 학계가 함께 AI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분야 AI 확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4. **국민에 성과 나눔: 일자리 확대, 복지-돌봄 안전망 강화**

- 이렇듯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해서 ‘(주) 대한민국’ 주주인 국민에게는 돌봄과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배당으로 환류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 지역·계층 간 양극화 심화,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노인 빈곤과 출산율 저하 등과 같은 복합적 난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대혁신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일터 조성

- 또한, 성장-복지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안전'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안타깝게도, 새정부 들어 산업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와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 등 산업재해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지난 9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기재부도 8월 22일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개최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9.1.)을 발표했습니다.
 - 안전경영 원칙 법제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 일터 안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낸 것입니다.
 - 획기적인 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촘촘한 제도설계는 물론이고,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산업안전 모델이 개발·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6. 마무리 말씀

- 오늘 이 행사는,
국가 싱크탱크이자 정책 나침반인 경인사연과 함께
대전환기 우리경제의 성장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혁명이라는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경인사연 역시 핵심과제를 개발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 '선도경제'로의 변화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핵심 '두뇌'인 경인사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 특히 아울러 기관간 협업과 융합과제 수행 또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격차 완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연구기관간 협업이 중요하고
 - 국가 아젠다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이 자리가
정부의 정책 추진에 동력을 얻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연구 주제가 논의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발표 순서에 없는 기관에서도 좋은 제안이 있다면
토론시간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